

정례브리핑

2021.10.25.(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는 오늘 10월 25일부터 토요일 10월 30일까지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을 운영합니다.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은 올해 처음으로 지정·운영됩니다.

이번 주간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합동발표회, 김장 담그기 등 봉사활동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이 탈북 주민과 남측 주민들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주민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충청남도 주최로 개최되는 제7회 환황해포럼과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기상청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세미나에서 영상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랜선으로 떠나는 북한 여행'을 주제로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토크 콘서트에서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직접 참석하여 작곡가 윤상, 방송인 샘 해밍턴 등과 함께 패널 토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말씀을 마치고 서면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6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의 의미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는 의미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는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온 교황과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폭넓게 대화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방문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뒷받침하고, 이번 방문의 성과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수행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서 교황의

조속한 방북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이번 교황청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통일부 차원의 별도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지요?

<답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대북 제안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여 다양한 현안을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 말 북측에 남북 영상회담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남북 간 주요 협의의제를 점검하는 등 대화 재개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제안이 조속히 호응해서 남북 간 산적한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미협의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한미 양국은 완전하게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인도적 협력,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미 측과의 협의에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과 계기를 통해 미 측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매체를 내세워 국내 현안에 대해 여러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해 문 대통령까지 비난했는데 북한이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답변>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국내 언론보도, 각계 논의동향 등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국내 현안을 거론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의 공식, 비공식 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서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